

고흥~벌교~부전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토론회

필요성·타당성 대내외 공표
고흥~서울간 2시간30분대 ↓
“우주·드론산업 전초기지로”

고흥군이 지난 12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망 확충계획으로 고흥~벌교~부전을 잇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도노선에 대한 경제성 및 타당성을 발표하는 자리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사

타당성 조사 결과 고흥 철도건설은 가능성이 있다”며, 고흥우주선 철도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계획해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고흥우주선 철도가 건설되면 고흥~서울간 이동시간이 현재 약 5시간에서 2시간30분대로 줄어드는 등 수도권, 부산·울산권 및 광주권역과의 고속교통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고흥우주선 철도를 기반으로 고흥군에 위치한 국가의 핵심 산업인 우주 및 드론산업 전초기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신순호 목포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민규 송원대 교수, 이상준 전남연구원 박사, 오동규 한국철도기술연

구원 박사, 김연규 삼보기술단 박사, 조항웅 대한교통학회 제주지회장, 김송일 고흥철도추진위원회 위원장, 송원종 고흥군 건설과장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군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경전선 목포~벌교~부전역(부산) 구간 중 벌교역에서 고흥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검토하고, 지역 여론 수렴을 거쳐 전남도와 함께 고흥우주선 철도사업 타당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일정으로 내달 23일 여수 엑스포에서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에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필요성'을 발표할 계획이

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철도망 구축은 2030년 고흥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중요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이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되면 지역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우리 군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철도건설에 필요한 정책과 전략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흥우주선 철도가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청년활동가학교 수강생 모집 순천시 거주 18~29세 청년 대상

순천시는 오는 17일까지 청년활동가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활동가학교는 지역 청년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청년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한다.

교육은 이달 18일부터 6월5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강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노동권 교육 △AI를 활용한 SNS 교육 △내 주변 이슈발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 교육 등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중 청년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공동체 형성에 관심 있는 청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문자(010-5601-8603) 또는 구글폼(<https://forms.gle/ukYY731t8exqF9Cs5>)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을 변화시킬 이번 교육에 순천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순천시, 30일까지

순천시는 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순천시가 본점 또는 지점인면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3년 12월 말까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상이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시청 방문이나 우편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세율 인하(과세표준 구간별 0.1% 인하), 분할납부, 납기 연장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분할납부 제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5월3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또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4월 마지막 주에 신고가 집중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린다”며, “신고·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통일기원 정남진 마라톤 대회 장흥군 탐진강변

장흥군육상연맹이 주최한 제18회 정남진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가 14일 장흥군 탐진강변에서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지역민 200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하프코스, 10km 단축코스, 5km 건강코스로서 치러졌다.

경기 시작 전 탈북예술인들로 구성된 평양아리랑 예술단이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통일 기원' 마라톤 대회를 응원했다. 통일 기원 자전거 라이딩, 한반도기 행진, 통일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이어졌다.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이봉주 선수와 장흥군 홍보자문인 김성환 전 기아타이거즈 감독도 팬 사인회를 열었다.

대회결과 하프코스 남자 1위는 박홍석(경남거제/1시간14분24초), 여자 1위는 유미정(광주광산/1시간30분17초) 선수가 차지했다. 10km 남자 1위는 이준혁(전남119/35분26초), 여자 1위는 박은정(전남여수/43분16초), 5km 남자 1위는 정승철(광주서구/19분 02초), 여자 1위는 김애정(전남화순/24분08초)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장흥군은 대회 당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마라톤코스 구간에 모든 차량을 통제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기념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선수들에게 제공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찾아가는 경로식당 운영 장흥군 유치면

장흥군 유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 연계 사업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무한돌봄 경로식당'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치 관동마을회관을 시작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영양과 건강관리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8개월 간 총 4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메뉴는 비빔밥으로 유치면 생활관리사들이 현장에서 조리하고 배식했다.

찾아가는 경로식당을 찾은 어르신 20여 명은 든든한 한끼를 나누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다.

안경아 유치면장은 “작은 정성이나마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업을 개발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제18회 정남진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가 14일 장흥군 탐진강변에서 열렸다.

장흥군 제공

광양시,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문열어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사업 2026년 5개소까지 확충 예정

광양시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성황수영장동 마당에서 장애인복지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개소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개소식은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직원 소개, 테이프 커팅식, 카페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내 봉사단체에서 주차 안내(새마을교통봉사대), 사진 촬영(포스코GRYTEK), 풍선아트 설치(하늬바람 풍선아트봉사단) 등의 협조로 안전하게 치러졌다.

'드림카페'는 공공청사 활용 중증장애

인 창업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바리스타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광양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은 광양시가 설치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장애인 바리스타 4명과 매니저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3월6일 문을 열고 임시 운영을 시작했다.

성황스포츠센터점은 주 5일(화~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황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음료 및 제과제빵 디저트를 판매하는 등 카페형 매점으로 운영된다.

시는 드림카페를 2026년까지 현재 2개소(시청점, 성황스포츠센터점)에서 5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정은 서산나래 원장은 “드림카페는 장애인 바리스타가 꿈을 펼치는 공간이면서 시민들에게는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서산나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카페 또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개소를 축하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특히,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올해 출산가정에 생애 첫 책 선물

광양시가 올해 1월1일부터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그림책과 도서관 회원증을 선물하는 '생애 첫 책 지원사업'을 16일 '엄마, 아빠 책 읽어주세요!' 행사와 함께 시작한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생애 첫 책 지원사업'은 올해 모든 출생아들에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편적인 독서 복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생애 첫 책 꾸러미'에는 그림책 두 권과 아기 도서회원증, 친환경 가방이 담겨 있다.

책 꾸러미 신청 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희망도서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다음 달에 가정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제공되는 그림책은 책과 함께 춤추며 아기의 언어적·신체적 발달을 도와주는 '춤췌요'와 친근한 숨바꼭질 놀이로

아이의 사고와 감각을 깨워주는 '찾았다! 우리 아기' 등 두 권이다.

또 책 표지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해당 도서의 활용법이 담긴 책놀이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림책과 함께 제공되는 아기 전용 도서회원증은 광양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대출과 프로그램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다. 아기 회원증의 사용기한은 취학 전까지이며,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다른 시군에서도 사용을 원할 시에는 전국 공통 회원증인 '책이음 회원증'으로 교체 발급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